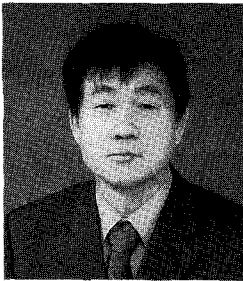


정확한 통계구축을 통한 사육수수 조절기능으로...



송 복 근
(무궁화 농장 대표)

지난 한해는 희망의 임오년을 맞이하여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전래에 없던 노계의 폭락과 더불어 풍부한 먹거리로 말미암아 우리 양계 업계는 그야말로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암담한 한해였다.

또한 돼지 구제역, 콜레라 등의 질병이 발병하면서 우리 양계의 질병은 뒷전으로 밀려 나는 신세를 면치 못해 정부의 정책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다.

다행히 모든 규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마당에 양계업의 등록제 전환과 더불어 대기업의 축산참여를 유보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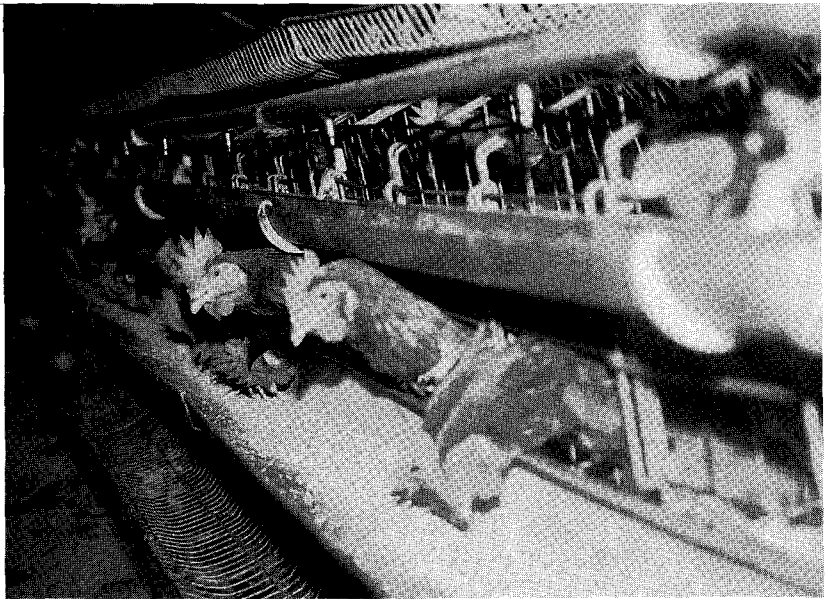
중계업계가 허가제로 전환이 이루어졌더라면 금상첨화(錦上添花)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새해 재미년에는 정말 우리 양계업계에 희망과 소원 성취가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하며, 이번에 제정된 등록제가 양계업에 적절히 잘 이용되어 우리 업계에 발전을 가져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볼까 한다. 중계업을 제외한 채란업은 사실 지금까지 업을 영위하는데 큰 제제와 간섭을 받아오지 않았으며, 등록제는 처음 적용이 되는 터라 신중한 입장에서 바라볼까 한다.

첫째, 기존에 업을 영위하고 있는 채란업자는 수자에 관계없이 많거나 적든 간에 모두가 다 등록을 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야 정확한 사육 통계가 집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과잉 생산체제에 돌입한 현 상황에서 만약, 신규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 규모를 1만수에서 10

만수 이내로 규제를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째, 새롭게 등록을 원하는 채란업자는 임대자 아닌 자기 땅을 소유해야만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무제한 적으로 늘어나는 수수를 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에 대한 자질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면 한다. 이는 곧 축



산관련 단체나 또는 농업 학교를 이수하였거나 농업 자격을 가진 자만이 양계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문제, 질병문제, 환경문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진정한 직업의식을 갖고 양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이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정부의 축종두수(통계)를 감안하여 적정수수가 지나치게 많을 때는 기존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당한 시간까지 신규등록을 받지 않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업계의 과잉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렇게 등록을 필한자는 번거롭더라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경우 진정한 축산업 등록업이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은 필자의 편협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채

란업을 정부의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어 정확한 수수파악을 기초로 한 과잉생산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앞으로 여러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겠지만 채란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양계협회는 채란인들로부터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면 한다. 이상과 같은 조건들이 잘 이루어 질 때 우리 양계(채란)업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등록제가 잘 정착될 경우 자연스럽게 쿼터제가 정착될 것이고 업을 그만둘 경우 폐업에 따른 폐업보상도 받을 날이 곧 다가오리라 믿는다.

아무쪼록 2003년도에는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되었으니 꼭 우리 축산업도 오랜 늪에서 헤어나 활기찬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축산인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양계**